

남·광산·북구지역 조직력 결합... 파급력 상당할 듯

광주시장 경선 강기정 단일후보 시너지 효과 있을까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강기정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향후 경선전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해온 '386세대'와 시민운동가 출신 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도 향후 경선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와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예비후보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후보' 시너지 효과 클 듯=4일 단일후보로 강기정 예비후보를 확정된 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당내 경선과 본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분권·혁신·민주·성장을 4대 가치로 ▲시민 시장 ▲협치 시장 ▲소통 시장이라는 시민공동정부 3대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최영호 예비후보는 곧바로 강기정 후보 캠프와 자신의 선거진영을 합쳐 강 후보를 지원할 뜻을 밝혔고, 민형배 후보도 자신의 조직을 강기정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한 뒤 조만간 공동 선거 캠프를 꾸리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3개의 선거 진영이 하나로 통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형배·최영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유권자의 관심이 강기정 후보로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

386세대+시민운동가 출신

세 후보 지지율 20% 상회

이용섭 후보 강력 압박

윤장현 불출마 영향 촉각

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10% 중반대에 머물렀던 강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단일화를 통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20%를 웃도는 만큼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용섭 후보와의 대등한 수준에서 겨뤄볼 만하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이용섭 예비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 가량 차이가 있었으나 후보 단일화로 지지율에 변동이 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라는 점에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주요한 변수다. 현재 3명의 후보들은 1년여 동안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상당수의 지지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명의 후보가 광주 남구(최영호)와 광산구(민형배), 북구(강기정)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직과 지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선전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단일화와 컷오프를 거치면서 단일후보를 지지한 기존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이 예상과 달리 다른 후보에게 빠

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경선일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각 후보들의 향후 지지세 확산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승패를 가를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세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단일화에 따라 강기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단순히 세를 불리는 형태의 단일화가 아니라 더욱 풍부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실천하는 큰 틀에서의 단일화를 진행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장현 시장 불출마도 변수=윤 시장이 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시장 측 조직과 지지세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윤 시장은 현재 단정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단일화에 긍정적이었다는 점과 수 십년 동안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몸을 담았던 경력을 봤을 때 우선 후보들의 정책성면에서 단일 후보인 강기정 후보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또한, 윤 시장이 재임기간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등을 민선 7기에 성공리에 완성시켜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후보 가운데 윤 시장의 이같은 역점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강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윤 시장이 밝힌 '마음 속의 후보'가 강기정 후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윤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경선 후보들의 '러브콜'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윤 시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4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윤장현 시장 재선 도전 선언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

'시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접고, 시민의 결의로 돌아갈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길을 택했다.

윤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정신의 계승과 올바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가 생각한다"며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시장이라는 직업을 해오며 '마음 속의 후보'가 강기정 후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

고 있다. 이를 살리는 일이 그러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등 민선 6기의 주요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기원한다"면서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지난달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7명이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민형배·최영호 청장이 출마를 접었고 윤 시장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광주지역 시민 운동을 후원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세계화를 위해 앞장섰던 윤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정치무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000명 여론조사 결과 숙의배심원 논의 거쳐 확정

단일화 어떻게 이뤄졌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참가했던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경쟁보다는 화합과 지역 발전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특정 개인에게 집중됐던 시장의 권력을 시민에게 일부 이관하는 '시민공동정부' 추진과 혁신적인 자치분권을 만들자는 데 뜻을 함께 한 것도 이번 후보 단일화의 큰 의미로 꼽힌다. 특히 지방공동정부 추진은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앞선 지난 1일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단

일화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2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시민사회단체 숙의배심원 22명의 논의를 거쳐 단일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중앙당의 경선 후보 면접일 때문에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나흘 간 세 후보들의 마라톤 회의 등을 통해 시민 여론과 시민사회단체 의견까지 종합한 단일후보를 확정했다.

4일 민형배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의배심원들이 마라톤 논의 등을 통해 강기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 한 뒤 세 후보에게 통보했으며, 세 후보가 이의없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설

명했다.

단일후보가 된 강기정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민형배, 최영호 후보의 통 큰 결단으로 광주정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세 후보가 물꼬를 튼 변화의 물결이 거대한 강물이 돼 광주를 바꿀 것"이라고 단일화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이들의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공동정부, 참 매력적인 비전이다. 세 후보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시민공동정부 구성은 역시 광주다운 발상으로 매우 감동적이다"고 평가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봄바람에 꽃잎 날리면 그늘마저 셋노란 봄



(220) 봄바람

"봄에 부는 바람, 바람 부는 봄/작은 가지 흔들리는 부는 봄바람/내 가슴 흔들리는 바람, 부는 봄/봄이라 바람이라 이 내 몸에는/꽃이라 술잔이라 하며 우노라/아, 봄! 내 마음 어디든 흠뻑이

어 봄의 전령은 역시 산수유 꽃이다. 굳이 먼 길 떠나지 않아도 자주 다니는 길목, 동네 공원에서 맨 처음 봄의 기별을 전해주는 생명이 산수유 노란 꽃이기 때문이다. 노란 꽃 몽실몽실 피어난 산수유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인 듯 아련하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꽃잎 흩날리면 나무 그늘마저도 셋노란다.

서양화가 국중호(1947~)의 작품 '생명의 순환'(2002년 작)은 산수유 노란 꽃이 화면을 압도한다. 지리산 기슭 구례 산동마을이 아예 노란 물감으로 휘감긴 듯 그림 속 풍경은 색채도 형태도 해방이다. 오랜 고향의 기둥과 가지가 보일락 말락 꽃바람에 언뜻언뜻 스치고 노란 꽃 산수유의 절정은 눈으로 보기에 분주할 만큼 꽃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윤주사 석불, 산동네 판잣집, 나주 배밭과 아낙네, 광양 다담 마을 대화에 이

를 살리는 일이 그러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등 민선 6기의 주요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기원한다"면서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지난달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7명이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민형배·최영호 청장이 출마를 접었고 윤 시장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훈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광주지역 시민 운동을 후원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세계화를 위해 앞장섰던 윤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정치무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국중호 작 '생명의 순환'

어 국중호작가의 조형적 대상이 되고 있는 산수유는 십 수 년 전 교통사고로 한동안 화필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던 때에 생의 환희를 되찾게 해 준 계기이기도 했다. 짙은 흑갈색의 고목에서 틈을 노란 꽃잎은 소생하는 생명의 눈이 자 생키였고 활력이었다.

얼마 전 목포대학을 정년퇴임하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는 "산수유 꽃 대결을 이룬 산동마을에 처음 들어섰을 적의 그 풍경과 색채의 신바람을 잊지 못해 올 봄에도 이미 화구를 챙겨 지리산을 몇 차례 다녀왔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장정기획실장·미술사박사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아가가세 펜션 숙박(매주 일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 특가(아가가세 고급온천 펜션) **439,000원**
아마구치 [실속] **699,000원** - [홍격] **769,000원**

직장인들을 위한 매주 금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고급료칸 1박) [실속] **749,000원** - [홍격] **799,000원**
아마구치 2박3일(료칸 1박) [실속] **769,000원** - [홍격] **799,000원**

여유있는 3박4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출발
[실속] 북 큐 슈 3박4일 **699,000원**
[홍격] 북 큐 슈 3박4일 **799,000원**
[실속] 아마구치 3박4일 **699,000원**
[홍격] 아마구치 3박4일 **799,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홍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5/20 1,0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홍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실버 기간: 4/15-6/22)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캐이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 산악루트를 이동하며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4시간의 산책코스
(※ 용장한 북알프스를 파노라미로 감상할 수 있는 신호타카 로프웨이 탑승 포함)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쭈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복합호텔 기준

[골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 ·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 3박5일(금) **969,000원**

[노팁 · 노옵션] 핫스프링온천 + 바나산국립공원 + 호이안야경
3박4일(화) **869,000원** - / 3박5일(금) **96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2004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년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여행자보험), 1박1일, 국내항공 52만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속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차버스 / 전 지역 ※ 산기 코요엔 호텔 및 리조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박1일 영남권보증보험 가입 / 여행준비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약)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식사, 가이드, 통사, 전차버스, 각종 부속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